K-Global Startup Conference 2015

1. Levin Ohad : "Fintech - The Startup Nation Way
   * 인서트 모바일에서 근무 (22년 경력), 유대인 임을 강조
   * KISRA 맨토

핀테크의 트렌드

* + Social
    1. Social VC : Kickstrter, Crowdfunder
    2. Social Loans & Credit : LendInvest, Leading Club
    3. Social Investments : eToro
  + Payments
    1. Zooz, Brainfree
    2. Transferwise
  + Personalization
    1. MintBills, LearnVest
    2. Betterment
    3. Periodic of Fin-tech Table : 인터넷 검색
    4. Future of Fin-tech

Lookout for regulations and regulation changes

Realtime payments

Taking Fin-tech technologies to new business : the insurance market

Big data analytics

Block chain : Bitcoin에 적용된 기법

1. 핀테크 패널토의
   * 참석자 : 리카르드 쉐퍼(영국, 시드캠프), 헨리호름(로비오엔터 부사장), 박경양(하레스 인포텍), Levin Ohad
   * 2012년 태국에서 앵그리버드 뱅크 시범운영시 10개월간 5M-dollars 거래
   *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규제나 기타 제반여건으로 안되어서 태국에서 진행하였음
   * ATM 거래가 전자거래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

: 소비자(컨슈머) first를 염두에 두어야한다

* + 핀테크 성공사례 : 핀테크 스타트업이 많은 자금을 투자받고 있는게 그 예에 해당할 것이다
  + 국가별로 규제에 대한 차이가 매우 큰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 한국에서는 현재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중국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한다
  + 핀테크는 신뢰와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어이디어는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창의적이어야한다
  + 애플의 어이디 터치는 유투브에 널리 있는 것처럼 지문인식이 완전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 중첩된 보안, 강화된 인증등의 기술적 요소에만 매달리지말고 사용자(컨슈머)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1. IoT/Wearable  "스마트 섬유가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 스캇 아믹스
   * The global market for Smart fabrics is forecast to grow to 2.1 Billion USD.
   * IoT를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Biomedical Informatics는 빅데이터 수집 & 분석을 거쳐 질병예측이나 예보, 백신개발등에 활용될것이다
   * Magnetic Fabrics: Shape shifting material (패턴이 움직일 수 있다)
   * LECHAL : Navigation for visually impaired
   * MC10 : Stretchable, bending computer (환자, 유아의 상태 체크)
     1. Fitness, 안전, 스포츠 부분에서는 IoT  기능을 가진 섬유가 빠르게 보급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Baby clothing, Medical Gowns등
2. IoT/Wearable 패널토의
   * 참석자 : Ben Chung(CISCO IoE 센터장, 송도), Tak Lo(테크스타 런던), Michael Wiemer(뉴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스캇 아믹스
   * Time to Market을 위해 새롭게 모든 것을 세우려 하지 말고, 기존 SI에 호환성만 염두에 두어야 한다.
   * Open Source가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IoT/IoE가 현재 이슈이지만 향후 어떤 것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유연성을 가지고 계속 스터디하고 준비하면 규제가 변할 때 치고 나갈 수 있다.
   * IoT는 특히 현재 스마트시티에 적용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
     1. 에스토니아의 e-estonia.com e-Residency 참고
     2. 아직 스마트시티에 적용시킬 아이템이 적은 상태이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관건
     3. 두바이 같은 경우는 비용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도할 만 하다.
     4. 유럽은 새롭게 고칠 수 없는 고전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려우나, 한국 송도에서 시스코가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던 상황이라 지난 4년간 많은 준비를 해왔다.
     5. 큰 도시에서의 스마트시티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다는 흥미를 가지고 있다. 즉, 도시의 최적화를 통해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다.
     6. 스마트시티에도 Backbone을 기반으로 각종통신(LTE, 5G, WiFi…)을 통해 Mesh Networking + P2P 통신을 구성하여 Every-where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 IoT의 사업화
     1.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고자 하나 실패에 대한 부담이 크다.
     2. 시스코는 IP 베이스 장비를 갖추고 있으나 산업에서는 그보다 하부, 다른 베이스를 채용한 장비가 운용된다. 스타트업들이 이들간의 커넥션을 담당해 주었으면 좋겠다.
     3. 공장외에 인벤토리, 소매등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전체적인 경제 생태계가 구성되어야 소비자들이 센서도 소비하게 될 것이다. 공급자측만을 위한 IoT는 그리 빠른 성장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4. 아마존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지속적인 테스트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본다.
3. AR/VR : VR 트렌드와 전망
   * 서동일 : 오큘러스 VR 한국지사장 역임
   * 새로운 하드웨어를 통한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AR/VR 패널토의
   * 오태훈(Reload Studios), David Oh(B2G MD), 서동일
   * 4.5 ~ 7인치에서는 QHD이상의 해상도는 의미 없다고 보고 있음. (삼성, 애플)
   * VR에서는 보다 높은 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PC 시장에서 더 이상의 고사양의 효용성 저하로 인한 시장 감소에 따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그래픽카드, CPU 업체들은 VR로 신규시장이 창출되어야 함으로 인해 VR 기술의 발전을 요구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 VR이 주는 사용자 경험은 PC에서의 구현과는 차별이 있다.
   * VR의 성공케이스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관망 중에 있는 시장임. VR은 롱텀으로 보고 추진해야 함
   * (Q) VR보다는 AR시장에 투자하겠다는 유명인(투자자)들의 의견이 있다고 한다.

: 현재 실리콘벨리에서 지갑을 열고 있지 않으나, VR을 가지고 VC등에 이야기하면 언제나 들어보고자한다.

: AR에서의 기술은 시장이 클 수 있으나, 창의적인 형태로 누구에게나 인정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 해외에서 VR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99%이상 이므로 VR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 VR 커뮤니티는 시장 크기를 키우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1. 영국 SeedCamp (엑셀러레이터)
   * 리카르도 샤퍼
   * 유럽과 영국의 스타트업 상황에 대해 소개
   * 유럽에는 전형적인 grows-up fund가 부작하다.
   * 영국정부에서는 EIS/SEIS 가 진행되고 있음

: 개인, 엔젤이 스타트업에 투자가 가능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세금공제와 보장을 정부에서 해준다.

* + 지난 수년간 정부+민간의 자금이 수Billion USD가 투여되어 런던이 유럽에서의 스타트업 허브가 되었다.
  + Crowd funding : SEEDRS, AngelList, Crowdcube (소비자를 주주로 참여시키고 있음)
  + 미국에서 유럽의 스타트업 전체의 50%를 투자하고 있다.
  + 한국에서는 기존 기업(대기업위주)에서 파생된 새로운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공했던 곳에서 그 문화와 관념을 가지고 새로운 창업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1. 미국 Techstars
   * Tak Lo
   * 40개 스타트업에 67.1M-USD를 지원하고 있다.
   * 토마스 탱구스는 Matter mark data를 분석해서 각광받을 기술로 첫번째로 비트코인을 네번째로 우주여행을 꼽았다.
   * Techstars에서는 천연자원(Food, Water, Energy)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n.thing ([www.nthing.net](http://www.nthing.net))” : 도시에서 작물을 키우는 업체
   * 자전거에 부착하여 네비와의 연동으로 자전거 라이딩 시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는 것을 만드는 업체

등에 투자하고 있다.

* + 에스토니아 e-Residency : 가입하면 정부가 보증하는 온라인 회사를 전세계 누구나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계좌계설도 가능하며 18분이면 회사설립 허가가 날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 타국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e-government를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싱가포르 Startupbootcamp
   * 핀테크에 주력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은행 내부에서 innovation이 잘되고 있지는 못하다. (고정관념과 그간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

“Can’t do innovation only in house”

외부 스타트업과 같은 업체를 활용하여 innovation을 완성해야 한다.

* + 싱가포르에서는 은행과 스타트업에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 런던과 싱가포르 엑셀러레이터가 10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IoT + 핀테크의 새로운 아이템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스타트업도 최종 심사까지는 진행되었으나 10개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아이디어가 좋았기에 향후에도 한국 스타트업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1. Accelerator 패널토의
   * 한국 업체도 헥스에서 지원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큰 무엇이 없었으나, 중국에서 판매. 제조를 해야 할 때 헥소의 많은 도움을 받아 쉽게 갈 수 있었다.

: 자금이 아닌 경영 영업 파트너로서의 Accelerator와의 협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 + Accelerator 선정 시 목적성을 가지고 선택하라

자금인지, 멘토인지, 현지협력인지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 한다.

자신의 준비된 상황에 따라 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 + Accelerator와의 연합도 타이밍이다

: 앞쪽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자신이 필요한 시점에 접촉 가능하도록 환경을 잡을 필요가 있다.

* + 고객들에게 직접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겠냐는 직접적인 접촉을 해봤다.

: Seedcamp 의 동기 인맥을 활용하여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었다.

핀테크 사업을 구현은 했으나 세일즈 파트가 없어서 Seedcamp의 도움을 받았다.

* + 좋은 Accelerator 선택방법
    1.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갖춘 Accelerator
    2.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방대함이 중요함)
  + Accelerator에 접근하려면

: 각각의 Accelerator를 파악하고 특성을 파악하고 질문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Accelerator를 찾아야한다.